

담양,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접종 88%, 접종완료 68.6% 달성

1차 4만766명·접종 완료 3만1천764명 16일까지 18세 이상 예방접종 사전예약

담양군은 지난 9월 2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한 결과 1차 접종자는 4만766명으로 인구 대비 88%, 접종 완료자는 3만1천764명으로 68.6%를 달성했다. 군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했고, 4월 15일부터 담양군예방접종센터

를 운영해 지금까지 75세 이상 고위험층, 고3 및 고교직원, 지자체자를 접종 등 2만4천526건을 접종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17개소)에서는 18세에서 74세 미만 4만7천676건의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또한 담양군보건소는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지금까지 접종 기회가 있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접종을 하지 않고 있는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18세 이상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 예방접종 사전예약을 받고 있는 중으로 사전예약은 16일까지 보건소(061-380-3961~6)를 통해 진행되며 스스로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외국인 등을 위해 보호자가

대리예약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그 동안 기회를 놓쳐 예약하지 못한 분들과 접종받지 않은 분들은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예약에 꼭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4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2~17세 및 임신부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예약은 5일부터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강종연 기자

장성군,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스카이 라운지' 운영자 모집

장성군이 이달 중 정식으로 문을 여는 신축 공설운동장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내 스카이 라운지 운영자를 모집한다. 5천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비롯해 보조경기장, 씨름장 등을 갖추고 있는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은 황룡강 물줄기를 바꾸는 창의적인 발상으로 마련된 7만 6천㎡ 규모 부지에 조성돼 이목을 끈다. 특히, 인근에 실내수영장과 흥길동체육관, 군립도서관 등이 자리잡고 있는데다 청운지하차도 건립을 통해 장성을 중심지와의 교통 연결도 한결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돼 추후 장성의 체육·문화 발전을 이끄는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운영자를 모집하는 스카이 라운지는 주경기장 건물 4층에 위치해 황룡강과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의 전경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임대

규모는 219㎡로, 용도는 카페나 휴게음식점 등 신청자가 장소에 적합한 사업을 제안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9월 27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단체다. 오는 11월 26일까지 시설물의 운영 용도 및 사용 계획이 명시된 제안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장성군 문화시설사업소(061-390-8471)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12월 중 낙찰자를 발표한다. 운영자가 확정되면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내년 1월 무렵부터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수의 허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광종 기자

영광군 보건소, 이달부터 건강관리 프로그램 재개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군민 백신접종률이 80%에 도달함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됐던 영광군보건소 프로그램들을 9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민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찾아가는 행복드림버스, ▲장애인 건강교실, ▲고혈압·당뇨병 예방교실, ▲경로당 한방 골관절염예방 건강교실이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완료자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보건전문요원들의 지도하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운영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한 군민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이 제한되면서 작년부터 우울감을 느끼고 신체기능이 저하됐었는데, 보건소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아 너무 행복하다”란 호평과 함께 프로그램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는 영광군 보건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100세 시대에 걸맞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국민지원금을 '전 군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화순군 제공

화순군, 국민지원금 '전 군민 확대 지급' 시작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1일부터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광주·전남 지역 최초로 국민지원금을 '전 군민'에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자는 6월 30일 이전 주민등록상 화순군민으로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천909명이다.

군은 이들 군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총 9억78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종이형 화순사랑 상품권으로만 지급된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화순읍은 주민자치센터에서만 신청 창구를 운영한다. 기존 군민종합문화센터와 하나움 문화스포츠센터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지원금은 신청 즉시 지급되며, 신청·지급 기간은 29일까지다. 지원금 신청은 세대별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고, 성인 세대원은 개별 신청이 가능하다.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은 개별 신청해야 한다. 고령·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1인 세대 주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지급 서비스'를 지원한다. /남호경 기자

나주시-LH, 용산주공 아파트 승강기 착공 25억 투입, 5개동별 15인승 승강기 설치·복도연결

나주시 용산동에 위치한 노후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승강기 설치 공사가 본격 추진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전남지역본부와 용산주공1차 영구임대아파트 승강기 설치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아파트는 5개동(지상 6층), 총 288세대의 소규모 단지로 지난 1991년 건립됐다. 입주자 대부분이 노약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었지만 지난 30년 간 승강기가 없어 일상에 불편을 겪어왔다. 승강기 설치에 LH광주전남지역 본부의 노후공공임대 시설개선사업

의 일환으로 지난 해 나주시가 입주민의 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승강기 설치를 LH에 건의하면서 추진돼왔다. 공사는 올 연말 준공을 목표로 5개동별 15인승 승강기 설치와 복도연결에 총 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된다. 준공 후 시운전을 거쳐 내년 2월 중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승강기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사 기간 주민 안전과 불편 해소를 최우선해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LH와의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성택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Road to Nature, Gurye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www.guryelocalmarket.com
구매 문의 ☎ 061)780-8294